



⑦ 연합뉴스 │ < ▷ 대통령적인수위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 비주얼; >





뉴스홈 | **최신기사**

브라질 축구, 에콰도르와 1-1 무승부

송고시간 | 2009-03-30 09:46











한상용 기자

브라질 축구, 에콰도르와 1-1 무승부

(서울=연합뉴스) 한상용 기자 = '삼바 군단' 브라질 축구대표팀이 에콰도르와 원정 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뒀다.

브라질은 30일(한국시간) 오전 에콰도르 키토에서 열린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월드컵 남미예선 조별리그 11차전 원 정경기에서 에콰도르와 한 골씩 주고받으면서 1-1로 비겼다.



이로써 브라질은 4승6무1패(승점 18)를 기록해 파라과이(7승2무2패.승점 23), 아르헨티나(5승4무2패.승점 19)에 이 어 조 3위를 지켰다.

풀리그로 진행되는 남미 예선에서는 10개 팀이 홈앤드어웨이 방식으로 팀당 18경기를 치르고 나서 4위까지 월드컵에 직행하 고 5위는 북중미카리브해 지역 예선 4위 팀과 플레이오프를 치 른다.

브라질은 후반 27분 호비뉴의 패스를 받은 줄리우 밥티스타가 오른발 슛으로 선제골을 넣어 앞서갔지만 후반 44분 에콰도르 의 크리스티안 노보아에게 동점골을 내줘 다잡은 승리를 놓쳤다.

4개월여 만에 브라질 대표팀에 복귀한 '하얀 펠레' 카카(AC 밀 란)는 왼쪽 발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 그라운드에 모습을 나타내지 못했다.

같은 날 아프리카 최종예선 1차전에서는 토고와 코트디부아르, 가나 등 전통 강호들이 잇따라 승전보를 전했다.

아프리카 최고 빅매치로 꼽힌 A조 토고와 카메룬의 맞대결에서는 토고가 전반 11분에 터진 에마뉘엘 아데바요르의 결 승골로 1-0으로 승리했다.

코트디부아르는 E조 1차전에서 홈 축구 팬 수십 여명이 압사당하는 사고 속에서도 간판 공격수 디디에 드로그바(첼시) 가 전반 7분과 28분 혼자 두 골을 넣은 데 힘입어 말라위를 5-0으로 완파했다.

2006 독일월드컵 출전국 가나도 D조 예선 베냉과 첫 경기에서 전반 1분 만에 넣은 프린스 타고에의 선제골을 끝까지 지켜 베냉을 1-0으로 꺾었고 이집트는 잠비아와 홈 경기에서 1-1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.

아프리카에 배당된 남아공월드컵 본선 출전권은 개최국을 제외하고 5장이다.

최종예선에 진출한 20개국이 4개 팀씩 5개조로 나뉘어 풀리그를 벌여 각 조 1위가 월드컵 본선에 출전한다.

gogo213@yna.co.kr

제보는 카카오톡 okjebo

<저작권자(c) 연합뉴스, 무단 전재-재배포 금지> 2009/03/30 09:46 송고





















핫뉴스 →

여성 전용 교도소라는데...美서 동료 재소자 끼리 성관계 후 임신

박진, 광우병 사태 때 美당국자에 "한국에 너 무 많은 민주주의"

다섯식구 평균키 203cm...美 가족 '최장신' 기네스북 등재

'왕좌의 게임' 출연배우,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

"마지막 순간 마음 바꿨다" 2015년 파리 테러범..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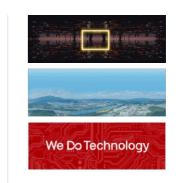
韓 육사 생도 영 왕립사관학교 첫 졸업...여왕 "양국...

日 공주와 결혼한 대학 동기, 뉴욕 변호사 시험 또...

기원전 2~3세기 마야 달력 파편 발견..."가장 오래...



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		
O 단시 중시된 단한 단련으		



현장 영상 →

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

▶ 01:18 ▶ 02:22

[영상] 압발 묶인채 두 눈만 멀뚱멀뚱...누가 학대했니 [영상] 곡사포 수송헬기 장갑차...美, 꺼렸던 무기들 [영상] 미국 최고위급 키이우 방뜴 결국 우크라에

링컨 등 후보군"

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영상

에디터스 픽 Editor's Picks

● 영상

▶ 01:59

[영상] 윤석열, 안철수 '패싱' 질문에 "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"

● 뉴스

2년1개월만 거리두기 전면해제...다음주부터 인원 ·시간 제한없다

尹당선인 "경제 복합위기 징후 뚜렷...물가상승 장기화 대비

尹당선인·安위원장 만찬 회동…"공동정 부 한치의 흔들림 없어"

'검증의 시간' 시작됐다...한동훈, 청문회 준비 돌입

"'의학에 뜻' 정호영 아들, 학부 4년간 관 련과목 2개 수강"

댓글 많은 뉴스

김건희 여사 팬카페, '악성 댓글' 누리꾼들 경 ○ 157 찰에 고발

2 '유퀴즈' 尹당선인 출연 논란..."프로그램 취지와

3 정호영 자녀, 경북의대 편입전 아버지 있던 경북 ☐ 61 대병원 자원봉사

4 두문불출 이재명, 이발·염색...조기등판론 속 활

5 문대통령, 손석희와 대담...靑 "임기 5년 소회 밝 ⊕ 41 힐 예정"

뭐하고 놀까? ## 😛 →



















뉴스홈 최신기사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

비주얼뉴스 영상 포토 화보 #D 그래픽 **뉴스 상품** 프리미엄뉴스 뉴스리 인터넷맞춤형 보도자료 해외배포 보도자료 국사베포

테미벌뉴스 핫뉴스 톰뉴스 주요뉴스 긴급뉴스 단독뉴스 많이본뉴스 **출판물** 이매진 연합연강 영문연강 한국인물사전 단행본 월간마이더스

뉴스+ 이슈돋보기 팩트체크 재난포털 날씨 주요신문.톱뉴스사설 이시각.헤드라인 **광고** KTX.열차 AREX.공항철도 모바일 P.C.홈페이지 출판물

 모바일뉴스
 모바일앱
 모바일앱
 보도사진
 이미지
 그래픽
 동영상
 인물

외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حربی Español Français **관련사이트** 연합뉴스TV 인포메스 한민족센터 K결정기회단(K-ODYSSEY) 채용 IR클럽 #홍

계약사/제휴문의

회사소개 윤리헌장 저작권규약 수용자권익위원회 모바일모니터링위원회 콘텐츠자문위원회 고충처리

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독자게시판 기사제보(02-398-3000) 사이트맵

연합뉴스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길 25 | 등록번호 문화,나00009 | 등록일자 1980.12.29 | 발행일자 1980.12.29 | Tel. 02-398-3114

(C) [대표이사]성기홍 [편집인]조채희

Yonhapne